

주요소식



2022 SUNBO 웰컴스쿨 ‘스마트선보인 길라잡이’ 성료 “체계적인 비전 공유와 깊이 있는 임원진 강연 큰 호응 얻어”

선보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신규입사자 워크숍인 SUNBO 웰컴스쿨 ‘스마트선보인 길라잡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구 암남동의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1년 이내 신규입사자(올해 9월 기준) 29명과 임원 11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회사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날 오전 일정으로는 ▲선보 성장스토리(서재욱 전무) ▲LET'S GO 2025 중장기 비전(최경호 상무) ▲선보유니텍 신사업 추진 전략(김정욱 선보유니텍 대표이사) ▲FGSS 시스템 및 사업 전망(김남수 부사장) 등 임원진의 열띤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 일정으로는 ▲친환경 선박 이해 및 전망(장호길 상무) ▲세계 환경규제 및 해외마케팅 전략(이지영 상무) 교육을 비롯해 외부 강사진의 긍정 마인드 다지기 교육·사가 노래교실을 진행했다. 이어 신규입사자들은 최금식 회장과 함께하는 CEO와의 대화를 통해 편안한 소통 시간을 가진 후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일정으로는 독서·목표관리·감사나눔을 주제로 한 최홍렬 선보피스 대표이사의 강연 후 신규입사자 토론과제 수행 시간이 마련됐다. 신규입사자들은 ‘협업과 소통 이슈 해결’을 주제로 소속팀의 강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유관 팀에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해 개인별 발표를 진행했다. 선보는 취합한 발표 내용을 임원 회의에 제출, 향후 경영 활동과 팀별 목표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입사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장 전망과 경영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과 함께 성과창출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주제의 임원진 강연과 수평적인 소통 시간은 신규입사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원윤정 사원(선보공업-설계3팀)은 “워크숍을 통해 선보의 비전을 알 수 있었고, 좋은 분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며 “명강연을 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진우 사원(선보유니텍-설계6팀)은 “선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며 “선보 Family로서 LET'S GO 2025 목표달성에 꼭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정 안내

팀장·임원 워크숍 연이어 개최... ‘소통·활력 UP’

선보는 신규입사자 워크숍에 이어 연말인 11월과 12월 중순 각각 팀장·임원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부서별 팀장과 임원들이 LET'S GO 2025 등 주요 목표와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리더십 교육과 함께 부문별 주요 이슈 및 대안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워크숍 세부 일정이다.

Coming Soon

▶ 팀장 워크숍

일정 2022. 11. 18(금) *종일 진행
장소 신라스테이(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38)

▶ 임원 워크숍

일정 2022. 12. 16(금) *종일 진행
장소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113)

수상 소식

선보유니텍 김청욱 대표이사, 삼성중공업 공로상 수상



선보유니텍 김청욱 대표이사가 삼성중공업이 주최한 제48주년 창립기념일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일 거제조선소 지원관 14층에서 창립기념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보 Family를 대표해 공로상을 수상한 김청욱 대표이사는 선보가 조선 빅3의 국내 제1협력사로서 신뢰와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특히 LET'S GO 2025의 4대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신성장 동력팀의 마스터로서, 탄소 중립을 비롯한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보는 내부에서 신(新)성장동력을 발 빠르게 구축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품질 확보와 납기 준수 공로를 인정 받으며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대형조선사들과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보는 조선업계의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수상 소식

선보공업 정제헌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 분야 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선정한 '2022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에 선보공업 정제헌 상무가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제헌 상무는 삼성중공업의 추천으로 자본재산업 기계 분야에서 포상을 수상하며 공적을 인정받았다. LNG 추진선의 BOG(증발가스) 재응축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기본특허를 취득하고 2021년 해외(중국·일본) 독점사용권을 획득했다. 2021년 말 기준 건조 중인 2척의 LNG 추진선에 우선 적용됐고, 향후 11척에 추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선보는 BOG 재응축 시스템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만큼, 국내 LNG 기자재 업계에 상당한 경쟁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보 Family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낚시 동호회

바야흐로 바다 사나이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추위가 최대의 적'이지만, 낚시 마니아들은 "진정한 낚시의 계절은 겨울"이라며 입을 모아 말하곤 합니다. 기름진 대어들이 척척 붙는 손맛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스트레스는 날리고 추억은 낚아 올리는 선보의 낚시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1. 선보 낚시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보 낚시 동호회는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입니다. 정기 출조는 1년에 약 2회 봄가을에 진행하며, 마음 맞는 회원끼리 수시로 모여 소소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2. 우리 동호회의 특징점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동호회는 각 부서 임직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을 안주삼아 부서 간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막힘없이 소통하며 건강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항상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첫 출조 채비를 돕는데, 미끼 끼우는 법 같은 기초 지식부터 알려드려야 해서 손이 많이들 갑니다(웃음). 그래도 회원들이 물고기를 들고 어린 아이처럼 활짝 웃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4.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낚시 동호회에서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지금도 단체 출조 시 회사차량을 지원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낚시 특성상 다른 동호회 대비 비용 지출이 다소 많다보니,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좋겠습니다.



5. 앞으로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회원들 실력이 향상되면 다른 조선소나 협력사 회원들과 조인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 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들과는 대마도 낚시 여행도 꼭 떠나고 싶고요. 선보 Family 중에서도 "아이들과 낚시 체험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마땅치 않다"며 관련 문의를 많이 해오십니다. '선보 가족 낚시 대잔치' 같은 행사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낚시터 쓰레기 투기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회원들과 함께 바다 청소 봉사도 병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6. 우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사 안전에 유의하며 낚시를 즐겨주시고, 어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방생 사이즈를 숙지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의 일탈과 힐링을 원하는 선보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조용한 밤바다를 마당삼아 쏟아지는 별을 이불삼아 사색에 잠기고 싶은 분, 조금 전까지 거센 조류를 타고 놀던 물고기를 잡아 소주 한잔 하고픈 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오세요!

인터뷰=낚시동호회 회장 이현우 책임(설계2팀)

회사 소식

2022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회 개최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야”



선보는 지난 10월 26일 본사 교육장에서 2022년 3분기 전사 사업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4개 법인(선보공업·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선보피스)별 팀장 이상 임직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가 제창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 일정으로는 선보의 친환경 기술 가치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 LET'S GO 2025의 팀별

발표가 있었다. 해당 발표에서는 4대 전략 목표인 ▲명품 모듈 신(新)격차 ▲친환경 LNG 연료공급 유니트 FGSS(Fuel Gas Supply System) 성장 가속 ▲기술 사업화 신성장 동력 ▲가치 공유 지속가능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HSE팀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현황과 경영기획 부문의 원가절감 실적 소개 후 영업 부문 보고를 끝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식 후에는 생산·플랜트 설계 부문 보고에 이어 품질·자재조달·경영지원·경영기획·전산 부문 보고를 이어갔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금식 회장은 긴급 현안 대응 및 이슈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또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고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업무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표이사진은 강평에서 “이슈 대응 시 온택트 소통뿐 아니라 담당자와의 대면 협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긴급 수주와 관련해 영업 단계에서부터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매출·수주 외 미달된 부문의 전사 KPI 달성 매진과 LET'S GO 2025 달성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 구성원 재배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내년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주 계획을 더욱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업 계획 작성 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달성 의지를 포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 소식

“걷기 운동에 환경미화까지” 가을 갈맷길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조치로 부산 가을 축제도 풍성해진 가운데, 선보 Family는 지난 10월 16일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사하 갈맷길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사하 갈맷길 걷기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개최되던 ‘승학산 가을등산 대회’의 대체행사로써, 올가을 처음 마련돼 참가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선보 임직원 100여명은 오전 9시 30분 신평레포츠공원에 집결해 해안산책로를 따라 다대포해변공원으로 약 6.7km를 이동했다. 선보는 행사 전 조끼와 간식, 생수, 경품 추첨권 등을 선보 임직원에게 개별 지급했다. 선보 Family는 동반 가족들과 함께 2시간여 동안 갈맷길을 걸으며 미리 준비한 장갑과 봉투를 활용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가족 단위 참가자의 자녀들이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이 따스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선보 Family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상생 의지를 다지고, 주민들과의 일상적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안전

선보공업 임직원 대상 ‘관리직 특별 안전 교육’ 실시



선보공업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본사 4층 대교육장에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리직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의 환기와 함께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를 통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관 부서인 HSE팀은 공장 출입 시 간과하기 쉬운 안전보호구의 필수 착용을 권고하고 선보 Family가 직접 제정한 12대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근무뿐 아니라 관리직의 현장 감시, A/S, 외부 고객 방문 등 각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HSE팀은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지연 신고 및 신고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 환자의 상태 등을 신속히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

“남은 올해도 무사히...” 안전기원제 실시



지난 2일 정오 선보 전 공장이 동시에 안전기원제를 실시했다. 안전기원제는 작업장 무사고 기원과 선보 Family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실시한 행사는 올해 마지막 기원제였다. 임직원들은 공장 정면을 향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무재해로 마무리하고, 다가올 신년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경미한 손상도 큰 부상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관리 부주의와 안전 수칙 미준수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작업장 상시 구축을 위해 전사 임직원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로 보인다.

EVENT 결과

가로세로 낱말퀴즈 당첨자 발표



<SUNBO NEWS> 10월호 '가로세로 낱말퀴즈'에 70명의 선보 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지난 1일 서재욱 전무(경영지원 담당)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보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선보 Family께 감사드립니다.

- ▶ **당첨자** : 박정향 사원(자재조달팀)
- ▶ **부상** : 신세계 5만원권 상품권

EVENT

‘우리 집 막둥이’를 소개해주세요!



어느덧 우리는 ‘천만 반려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곁을 돌아보면 친구처럼, 연인처럼, 때론 가족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SUNBO NEWS> 11월호에서는 선보 Family를 세계 최강 팔불출로 만들어줄 ‘우리 집 막둥이 자랑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 **방 법** : ‘우리 집 막둥이(반려 동식물) 이야기’를 김자영 사원(경영지원팀)에게 쪽지로 전달
- ※ 반려동물 또는 식물과 본인이 함께 찍은 사진, 막둥이 이름, 성별, 종, 막둥이가 된 사연 또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내용에 반드시 포함
- ▶ **제출일** : 11월 30일(수)까지
- ▶ **추 침** : 12월 2일(금) 무작위 추첨 후 선보 Family SNS 계정을 통해 발표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사원
- 인사, 교육 김정석 팀장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선임, 이대현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배상준 사원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본사	정해찬(11.12)	신유철(11.18)
	이화진(11.15)	임동식(11.18)
	장호길(11.15)	정원진(11.18)
	고중현(11.16)	강영한(11.19)
	박수영(11.16)	

다대1공장	최은호(11.02)	박주홍(11.26)
	반유선(11.22)	김수환(11.28)
	강민구(11.26)	노 에(11.29)
	박주호(11.26)	

다대2공장	박재용(11.02)	상 굴(11.13)
	김태은(11.03)	소상섭(11.19)
	타오싱(11.11)	

선보피스	김용희(11.25)
------	------------

구평공장	남정화(11.03)	류성일(11.20)
	차동현(11.05)	장정현(11.20)
	김 술(11.14)	성기욱(11.24)
	최동욱(11.15)	차창민(11.28)
	박선영(11.18)	

영암공장	경충수(11.11)	송경인(11.15)
------	------------	------------

입사기념일

본사	이종필(11.01)	박수영(11.13)
	이현수(11.01)	김자영(11.18)
	장봉수(11.01)	김재원(11.18)
	강영한(11.01)	임동식(11.20)
	김광남(11.04)	정원진(11.22)
	유무성(11.09)	이경진(11.27)
	김충식(11.12)	

다대1공장	길베포(11.01)	노 에(11.11)
	레이마크(11.01)	넬 슨(11.11)

다대2공장	배승용(11.01)	김충민(11.25)
	양청수(11.01)	전형주(11.26)

선보피스	권희정(11.01)	양태진(11.01)
------	------------	------------

구평공장	김대연(11.01)	공대성(11.13)
	김태만(11.01)	김태경(11.13)
	반 킷(11.01)	오창배(11.13)
	방영봉(11.01)	손대석(11.14)
	이태수(11.01)	이상훈(11.21)
	신용화(11.06)	김광수(11.29)
	이원규(11.07)	

영암공장	박상부(11.01)	이효정(11.01)
------	------------	------------